



#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OCTOBER 2021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14

### 9월 Clearview Golf 대회



50% chance of rain or thunder shower로 다소 우려되던 일기에 보가 어느 분 표현대로 '골든클럽 행사를 위하여' 하늘 가득한 구름 사이로 이따금 햇살도 비치며 산들바람까지 불어주는 초가를 날씨로 야외모임에 좋은 날씨였다.

1시 Shotgun에 맞추어 12시까지 등록을 마치고 여기저기 둘러앉아 점심 김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안부도 묻고 이야기 나누다 단체 사진 찍고 이준행 회장님 인사 말씀도 들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골프에 탐닉하다가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상체 위주로 골프를 즐기셨지만 몇 년 전부터 의사의 권유로 단체행사 참석을 멀리하셨다. 골프는 안 치더라도 회원들과 2~3시간 어울릴 의도로 5년 만에 모처럼 골프장에 오셨다가 기분이 흐뭇하셔서 저녁 늦게까지 골프장에서 식사 함께하시고 헤어졌다.

금년 두 번째 뉴욕에서의 골프대회로 뉴저지 지역 행사에 참석 못 하던 계동휘, 금영천, 김우영, 박희병 선수가 함께했고, 김한중 회원의 권유로 이상무 동문(의대 56년 입학)이 데뷔하여 오유섭, 손대홍 회원과 White tee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노익장을 과시하며 활

기가 가득했다.

특히 이준행 회장께서는 건전한 재정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지난봄에 이어 또 \$10,000을 '골든클럽 발전기금' 종자돈으로 기부해 주시고, 골프대회 특별 상금으로 \$1,000을 후원해 주셔서 다음 골프대회까지는 상금이 풍성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단단한 페어웨이와 벙커 등 장애물이 적어서 많은 회원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이날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Group	Prize	이름	Gross	Net
Gold	1등	박희병	79	-14
	2등	배상규	86	-8
	2등	최준희	92	-8
White+Red	1등	김승호	86	-12
	2등	손대홍	86	-5
	2등	조달훈	87	-5

Close Pin: 흥정표, 손대홍, 손갑수, 박희병

특별상: Par 10개 -천병수, 8개 -김한중, 박기환

Bogie 13개 -손경택, 12개 -이상무, 조승자

## 뉴욕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안내

뉴욕동창회 추계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10월 13일 (수요일) 11시 Shotgun

**장소:** Sunset Valley Golf Course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회비:** 개인 \$120 부부 \$200

**문의:** 김정필 (201-965-7759)



## 가을 산행 안내

### Harriman State Park

무더위도 심했고 얼마 전에는 Hurricane Ida가 뉴욕 일원에 엄청난 홍수피해를 남기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어느덧 선선해 지면서 滿山紅葉의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을 아름답게 단풍이 물든 5-6마일 정도의 산행길로 안내하고자 하니, 가족, 친지와 즐거운 하루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21일(목) 9시

**모이는 장소:**

PIP(Palisades Parkway) exit 4-5 (9시까지)

중간 Commuter Parking Lot

Trailhead(10시까지):

GPS Coordinate 41.234834, -74.149029

**준비물:** 마실 물과 간단한 도시락

**문의 사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 김종올 회원 문병



2011년 가을까지 매월 산행과 골프 행사에 참석하며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다가, 그해 9월 29일 Pocono Golf Trip 때 Casino Hotel Escalator에서 넘어져, 뇌출혈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회복에 정성을 기울였지만, 기대만큼 호전되지 못하여 외부출입은 휠체어에 의존하고 계신다.

김종올 선배님이 지난 6월 17일 Rockland Lake Picnic 때 '동문,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정 어린 주장으로 휠체어에 의지하여 어렵게 참석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반기는 회원들에게는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 후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서, 함께 지낸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가깝게 지내던 회원들과의 만남을 고대하신다는 사모님의 연락을 받고, 지난 9월 3일 이준행 회장님과 몇 분 선배님을 모시고 White Plains 자택으로 찾아뵈었다. 거동이 불편한 이준행 회장님을 성기로 선배님이 모시고, 손경택 선배님과 함께 맥으로 찾아가 점심을 함께하며 4시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Ed Kang회원도 잠시 자리를 같이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이었다.

[김옥수 사모님 감사 서신]

이준행, 성기로, 손경택, 홍종만 회장님께,

어제는 바쁘신 일상에서도 먼 길을 오셔서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준행 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데도 "무례한 후배"의 병문안까지 하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작별 인사 후 집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박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을 보니 아마 감사한 마음과 건강할 때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려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홍 회장님이 Email로 보내주신 메일과 추억의 사진들도 감사히 간직하겠습니다. 동창회와 골든 클럽에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orchid 화분도 고맙습니다. 저희 집은 다른 화초는 별로인데 orchid는 잘 자라는 편이라서 앞으로 거뜬하게 2년은 보존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가정에 늘 건강을 기원하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White Plains에서  
김옥수/김종올 드림

#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총회 및 야유회

서울대학교 뉴욕 동창회의 42회 총회 및 야유회가 25일 Rockland Lake State Park에서 130명의 동문과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42대 금영천(약대72) 회장은 김병순(사회대82) 사무총장과 임원단을 발표, 인준을 받고 회칙개정과 감사 보고, 예산안 인준을 하였다. 이어서 조상근(법대69)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정해민(법대55) 홍종만(공대64) 양인회(농대58) 동문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이준희(음대95) 음대 회장이 준비한 작은 축하 음악회가 청명한 가을 날씨와 함께 멋진 노래를 선사하면서 더욱 야유회를 빛나게 해주며, 팬데믹 이후의 소원했던 동문 간의 우애를 복돋우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특별히, 골든클럽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셨고, 가라오케와 푸짐한 경품과 재미있는 퀴즈 진행(손대홍 미대79)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뉴욕지부는 10월 13일 수요일, 추계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영천 신임회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을 준수하면서도, 많은 주옥같은 동문들의 활발한 연결과 협동으로 동문 간의 유대관계와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재임 시에 계획하며, 특별히 80년대 후반 동문들의 많은 참여로 골든클럽과 젊은 동문들의 긍정적인 교류와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크에 가득한 동문들은 그동안 팬데믹으로 함께 하지 못했던 친구 선후배들과 뜨겁고 기쁜 만남을 마음껏 가졌다.



42대 동창회 임원들이 함께하였다. 왼쪽에서 2번째가 금영천 회장



음대 동문 소프라노 서지혜, 조한나, 베이스 바리톤 한종원, 피아노 황소희가 총회 축하로 미니 콘서트를 하여 기쁨을 선사하였다.



이중대 회원 작품이 전시된 Yesarang Annual Exhibition (Riverside Gallery)에 손갑수, 이용대, 홍종만 회원이 축하차 방문

##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이상무 회원**(의대 56년 입학)  
(M) 908-625-7751  
(E) SANGML921@gmail.com  
Sang M Lee  
1512 Palisade Av, #12M  
Fort Lee, NJ 07024



**안용희 가족회원**으로 복귀 환영  
한태진 회원 부인  
(M) 917-392-1116  
(E) yongheehahn@gmail.com  
Hahn Yonghee  
346 E Madison Ave  
Cresskill, NJ 07626

## Clearview Golf 대회

모처럼 화창한 날씨 속에서 5년 만에 골프장을 찾으신 이준행 명예회장과 함께 오후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회장님과 함께 포즈를 취한 모든 회원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환한 미소가 어울려 이날의 좋은 스코어를 예고하고 있었다.



김광현 이준행 박희병 김우영



대회 후 골프장 파빌리온에서 열린 디너와 시상식



임도혁 손경택 이준행 한태진 성기호



계동휘 이종대 이준행 금영천 오용호



박기환 이준행 송학린 손갑수 윤선구



김종원 홍선경 이준행 송현자 박정은



진봉일 임호순 이준행 최준희 권정덕



천병수 이준행 최병우 조달훈



홍정표 안용희 이준행 송근숙 남중현



김승호 조승자 이준행 Mrs.김승호 김정필



김한중 이상무 이준행 오유섭 손대홍

# 하느님과 우주인

최진영 (문리55)

전 지구촌이 기후변화에 따른 화재와 홍수,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지구의 미래가 의심스러워지는 이때 과학자들과 각계 석학들의 논문이나 기고문을 찾아 아래의 유명한 잡지들을 몇 권 읽어보았습니다. The New Yorker, The New York Times Magazine, The Atlantic, The Harpers, The Economics 등인데 이들 잡지에 실린 글의 내용을 보면 글의 표현이나 전공 분야에 따라 다소 시각이 다른 점은 있지만, 모두가 글의 목표는 비슷했습니다. 요약해 보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문제는 인간이란 것입니다. 탐욕과 무관심과 과학 만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저희 친구는 아마존 밀림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밀림의 훼손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온 원주민에 대한 학대와 학살, 이 모든 것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오직 이익을 위해 모든 생물과 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핵심을 찌는 한 커트짜리 cartoon을 즐겨봅니다. 첫째 cartoon을 보면 구름 위에 서서 이곳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한 손은 턱밑에 고이고, 측은하고 안타까운 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의 캡션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였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모든 동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주었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cartoon은 우주인인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우주인들은 지구인들 보다 수억 년을 앞서 있는데 지구인들이 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답답하다.” 그런데 그 우주인의 마지막 한마디가 “지구인들이 끝내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 우주인은 단 일

만분의 일 초 동안에 지구를 아예 없애 버릴 수 있다.”라는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 위의 cartoon은 본문에 기술된 cartoon이 아님

# 서러워하지 않으리

(부제 - 자서전)

천병수(공대70)

30대에 꽃상여 타고 멀리 떠나버린 아버지  
시골 가난한 홀어머니 긴 한숨 마시며  
서러움 부러움에  
어지간히 배불러 했지

창가에 깃든 햇살  
어린 꿈을 뒤척이며  
로댕의 생각 하는 사람을 보았고

별빛 쬐어 외로움 즐기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  
신음소리에 웃음 배웠다

한때 중동 사막 더위에 젊음을 태우다 보니  
열등 교만 불운 운명  
모든 것이 녹아 버렸다

이국땅에 왔다가  
이쁜 교포 처녀 만나 이세도 낳고  
손주들도 보고

울 아버지 보다는 오래 살았으니  
무난히 예비 구실은 해 낸 것 같다  
서러움 대물림 안 했으니

가끔은  
골프공이 물에 빠질 때면  
육두문자 쓰기도 한다

무엇을 더 바라리  
서편제 “이산 저산 “ 판소리에 나를 맡긴다

내 나이에  
이밤이 마지막 밤인들  
서러워하지 않으리

Aug 2021

# 포트리 근처의 맛집들

오용호 (의대66)

나는 포트리 근처에 사는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백 번 활용하여 즐기려고 한다. 그중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큰 Korean community가 있어서 그로부터 받는 혜택이다. 우선 친구와 친지들이 가까이 많이 있어 socializing이 쉬워서 여러 activities를 공유하며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은행을 가나 우체국을 가나 매점 (예를 들면 Staples, UPS, 편의점 등)들을 가도 쉽게 한국 분을 만날 수 있어 의외로 쉽게 도움을 받기도 한다. 다양한 한국 식당이 즐비하여 음식 맛도 좋고 질도 좋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혜택이다. Korean and Asian supermarkets와 groceries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 마음껏 고국의 요리재료, 밀반찬, 과일, 기타 생활 도구와 가재를 살 수 있다. 저녁에 친구나 친지와 한잔 걸칠 장소들이 많이 널려 있고 한국식 찜질방, 기원, 이발소, 미장원 카페들이 가까이 많이 있어 여간 편하고 요긴한 게 아니다.

바로 옆에 뉴욕이 있어 무궁무진한 문화 창고를 쉬이 접할 수 있다. 최근에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museum, 브로드웨이 뮤지컬, 문화행사를 다녀보니 대중교통 수단이 그렇게 다양하고 편하게 있는 줄을 미처 몰랐다. 편리한 website를 이용하면 쉬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나는 오늘 몇 개의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소개할까 한다.

## 평안동 양육집



옥호가 다소 이색적인데 예전 팔파의 로디오 빌딩 내에 있던 한식집이 포트리로 옥호를 바꾸어 이전해 와서 성업 중인데 전통 한식을 만날 수 있다. 식당은 안채와 뒤 켄의 patio로 나뉘어 있는데 patio 칸은 운치가 있다. 식당 안이 아담하고 서비스하는 아줌마들이 상냥하고 친절하다. 밀반찬이 정갈하고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메뉴는 병어조림, 갈치조림, 언양 떡갈비, 김치 갈비찜 등이고 가볍게 먹으려면 잔치국수, 냉면, 추어탕, 토란탕을 시켜도 좋다.

병어조림, 갈치조림, 언양 떡갈비, 김치 갈비찜 등이고 가볍게 먹으려면 잔치국수, 냉면, 추어탕, 토란탕을 시켜도 좋다.

## 싸릿골



Fort Lee Main Street와 Palisades Ave 정점에 있다. 돼지국밥 전문점이다. Englewood Cliffs에 있는 부산 국밥집과 비슷한 메뉴를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싸릿골을 더 좋아한다. 부산 국밥집은 너무 greasy하다. 이 집의 추천 메뉴는 해내탕이다. 식당 안은 토속적으로 지저분하고 조금 불결해 보이나 음식 맛이 우선 아닌가?

## 강남 식당(Gangnam tofu house)

West Clinton Ave와 Country Road가 만나는 정점 부근의 Tenafly에 있는 아주 작은 가정식 음식점으로 실내용 table이 몇 개 없다. 이 집 할머니의 손맛이 들어내는 음식은 가정식 백반집 같다. 대표적 메뉴는 쓰레기 된장국이다. 밀반찬이 맛 같 난다. 굴 미역국, 떡배기 떡갈비도 맛있다.

## 숯불가든

Broad Ave.가 46번 만나는 정점의 팔파에 있는 전형적 바베큐 집이다. 고기를 숯불로 구우니까 정말 맛있다. 매주 다른 요일에 세일 고기를 선택하면 20~30% 싸게 먹을 수 있다. 다량으로 고기를 소비해서 고기 질이 좋다. 술판 벌이는 table이 많이 보인다. 소주나 막걸리와 같이 고기를 먹으면 일품이다. 또한, 이 집의 갈비탕을 적극 추천한다. 맛이 있고 갈비가 실하게 나온다.



## 곰창이야기



포트리 Main Street 상에 있는데 포트리 우체국 맞은편에 있다. 개업한 지 일 년이 안 되는데 항상 붐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고 주말에는 꼭 예약해야 한다.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는데 싹싹하고 실내가 깨끗하고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싫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젊은이들과 어울리면 더 젊어지지 않을까? 이 집 곰창구이가 일품이다. 술판 벌이는 table이 많다.



9월 22일 이준행 명예회장님이 뉴스leter 편집위원들을 초청하여 포트리에 있는 가연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격려하였다. 지난 2년간 팬데믹에서 회보가 계속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회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나날이 발전해나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보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회보, 매월 발간을 기다리게 하는 회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The Samurai invasion -

The Impact of Japanese Baseball Talent to American Major League Baseball (MLB)

정도현 (공대57)

The biggest buzz of post pandemic 2021 MLB season is the awesome baseball talent display of Shohei Ohtani, a young Japanese phenom with impressive size (6'-5"). He came to America in 2018 to play for LA Angels as a pitcher as well as a hitter. Since Babe Ruth in the early 1920s, no one has played as a two-way player until Ohtani. Although Ohtani is uniquely talented, he rides a long line of successful Japanese MLB trailblazers.

Baseball had been a uniquely American sport. Until 1947 when Jackie Robinson joined the Brooklyn Dodgers, MLB had been the domain of the white race. Black players had to play in the segregated Negro League. Unlike soccer, baseball wasn't a global sport, except in a few countries in Northeast Asia (Japan, Korea), the Caribbean Islands and Central America.

Jackie Robinson opened flood gate of talented black players and MLB gradually began to search for the jewels of players from the regions of the Caribbean Islands. Yet it took almost two decades after J. Robinson, a Japanese player finally came to the United States.

M. Murakami, in 1964, was the first player in the MLB. He played as a relief pitcher for the San Francisco Giants. But the door really opened 30 years later when Hideo Nomo signed with the LA Dodgers in 1995. Soon more than half a dozen Japanese players followed to the US, all were Pitchers.

But the most significant transitions were the signings of Ichiro Suzuki, the first position player (non-pitcher) with the Seattle Mariners in 2001 and slugger Hidecki Matsui with the NY Yankees in 2003. Ichiro had a Hall of Fame worthy of career in the MLB with Rookie of the year and MVP, producing more than 3,000 MLB hits before retirement. Matsui, aka Godzilla, had huge impact to Yankees, including MVP performance during the 2009 World Series. However, until now, the majority of 63 players from Japan who played in the MLB are pitchers, starting with Hideo Nomo, followed by such as Masahiro Tanaka, Yu Darvish and many others.



Finally, the whole baseball world was excited to the expectation of the arrival of the superhero from Japan to the biggest stage of MLB. The baseball pundits called him "A once in a lifetime player" equating him with "The greatest player of all time - Babe Ruth".

Shohei Ohtani is born in Japan in 1994 (27 years old), 6'-5" tall, 210 lbs two-way player, just like Babe Ruth (the last two-way player in MLB ). He debuted in MLB for LA Angels in 2018. After 2 seasons of Pandemic years, he finally displayed his awesome talents in this year. At the moment he is leading the league with 44 homers (many of them are 450 footers). He had 9 game winning pitching stretch. Some of his pitches are well over 100 miles per hour. He has an almost unhittable late breaking split-finger pitch.

It sure looks like one of the most memorable seasons for Ohtani. As a baseball fan, I hope that he is free from major injuries and has many more seasons like this year and a long outstanding MLB career.

회원 명단 (111명 / 2021-09-20)

강교수	김병순	박희병	오순문	이준행	최수용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오용호	이준희	최순재
강영선	김승호	성기로	오유섭	이행순	최준희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오인석	이흥빈	최진영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우규환	임도혁	최철용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유무영	임호순	최학주
곽선섭	김익성	남종현	윤선구	정도현	추재욱
곽승용	김인형	손옥화	윤종숙	정수일	한영수
구달희/	김정필	송근숙	윤현남	조달훈/	한용수
권정덕/	김종욱	송현자	이강홍	조승자	한태진
홍선경	김창수	송학린	이대연	조상근	허용웅
권영대	김태일	신진식/	이대영	주상선	홍사만
권태전	김한중	이상무	이범선	주재양	홍정표
금영천	김현중	이정자	이수호	진봉일/	홍지복
김광수	노용면	이준기	이용대	이준구	홍종만/
김광현	민준기	안용희	이종대	최구진	홍예경
김동건	박기환	양인회	이종석	최병우	
김문경	박준구/	오 성			
김문언	최숙희				

골든클럽 2021년 행사 일람 (2021-09-30)

1월		Golden Club Directory 발간
3월	3월 27일(토)	신년교례회 (정기총회)-취소
4월	4월 14일(수)	Hiking - Harriman State Park 13명참가
	4월 22일(목)	Opening Golf Outing - Sunset Valley 38명참가
5월	5월 19일(수)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Walkkill 40명참가
6월	6월 10일(목)	Golf Outing - Philip J. Rottela 44명 참석
	6월 17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74명 참석
7월	7월 15일(목)	Golf Outing -Pelham Bay 43명참석
8월	8월 12일(목)	Golf Outing -Walkkill Golf Club 33명 참석
	8월 19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18명 참석
9월	9월 16일(목)	Golf Outing -Clearview Golf 42명 참석
	9월 25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정기총회및 Picnic 130명 참석
10월	10월 13일(수)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Sunset Valley, NJ
	10월 21(목)	Harriman State Park 산행
11월	11월 4일(목)	Golf Outing
12월	12월 4일(토)	동창회 송년회 예정
1월	미정	플로리다 골프트립
3월	3월26일(토)	신년교례회

2021년 연회비 납부 명단 (90명 / \$9,000/ 2021-09-20)

강에드	김문언	박희병	양인회	이종석	천종화
강교수	김병순	배상규	오순문	이 준	최병우
강영선	김상만	성기로	오용호	이행순	최수용
계동휘	김승호	손갑수	오유섭	이흥빈	최순재
고애자	김우영	손경택	오인석	임도혁	최준희
곽상준	김익성	손대홍/	우규환	임호순	최철용
곽선섭	김정필	남종현	유무영	정수일	한영수
곽승용	김종욱	손옥화	윤선구	정해민	한용수
권정덕	김한중	송용길	윤종숙	조달훈	한태진
권태전	김현중	송현자	윤현남	조승자	허용웅
금영천	노용면	송학린	이강홍	조상근	홍선경
김광수	민준기	신진식/	이대연	주상선	홍지복
김광현	박준구/	이전구	이수호	주재양	홍종만
김동건	최숙희	이정자	이용대	진봉일	홍예경
김문경	박기환	송근숙	이종대	천병수	홍정표

2021년 후원금 기부 명단 (31명 / \$14,470 /2021-9-20)

곽선섭 100	노용면 400	우규환 200	임호순 300
곽승용 300	성기로 300	윤선구 200	정준영 100
권정덕 200	손경택 1,000	윤현남 500	정해민 1,170
금영천 300	송학린 1,100	이강홍 200	최수용 1000
김광현 200	신진식 300	이전구 1,000	최철용 300
김승호 700	양인회 200	이준행 2,000	한태진 500
김종욱 200	오용호 100	이행순 200	홍종만 500
김한중 300	오유섭 500	이흥빈 100	

2021년 입회비 납부 명단 (5명 / \$1,000 /2021-8-20)

남종현	금영천	김승호	김한중	윤종숙
-----	-----	-----	-----	-----

2021년 발전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1-9-20)

이준행 20,000



10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강에드 (사대60)
- 노용면 (의대49)
- 손대홍 (미대79)
- 우규환 (사대60)
- 이정필 (의대58)
- 임호순 (공대52)
- 조달훈 (사대66)
- 홍정표 (음대68)

골든클럽 컴퓨터연구원 강의

뉴욕: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뉴저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Zoom video 강의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양인회 (917-494-0223)  
 홍종만 (646-342-2667)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생년월일: \_\_\_\_\_

단과대: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_\_\_\_\_

주소 (Home): \_\_\_\_\_